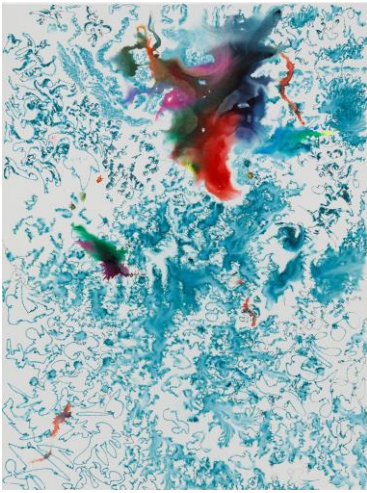


작 품 명 세 서



ARTIST Yoo Seung-ho
TITLE Miss Lamella
YEAR 2019
MEDIUM Ink and acrylic on canvas
SIZE 96 x 72 in
PRICE USD 40,000

이름 유승호
제목 라멜라양
연도 2019
재료 캔버스에 먹, 아크릴
크기 245 x 183.6 cm
금액 40,000,000 KRW

• 작가약력

유승호(b.1974)는 한성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1999)하였으며 지금 현재 서울에서 작업하고 있다. 유승호의 작품에 등장하는 무수한 '글자-기호'의 언어적 의미와 그 '글자-기호'가 만드는 이미지로서의 회화는 의미의 분리와 결합을 오가며 텍스트와 이미지의 비본질적 상호관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그의 작품은 기호로서의 의미, 이미지로서의 회화의 경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작용하거나 때로는 모호한 관계속에서 상호작용하므로써 기호-회화로서 새롭고 독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 작품설명

푸른색 잉크를 사용해 물감이 번지듯이 표현했다. 작가는 선 드로잉 위에 미스트 분무기로 아주 고운 입자의 물을 뿌린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선 드로잉의 우연한 번짐은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형태가 스스로 생성된 것"이며, 작가는 이것을 "선물 받는 기분" 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연한 형태는 연쇄반응처럼 새로운 의도로 이어진다.

• 작품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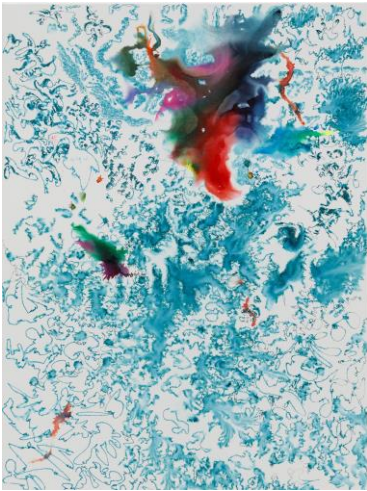
작가소장, 2022

• 전시경력

• 참고문헌

• 참고사항

Certificate of Authenticity
작 품 보 증 서



ARTIST Yoo Seungho
TITLE Miss Lamella
YEAR 2019
MEDIUM Ink and acrylic on canvas
SIZE 96 x 72 in
PRICE USD 40,000

이 름 유승호
제 목 라멜라양
연 도 2019
재 료 캔버스에 먹, 아크릴
크 기 245 x 183.6 cm
금 액 40,000,000 KRW

We guarantee the authenticity and quality of this work.

If you suspect that the above work is a forgery, you can apply for an appraisal. If it is found to be a forgery after appraisal, cancel the sales contract with you and the full amount of the sale will be compens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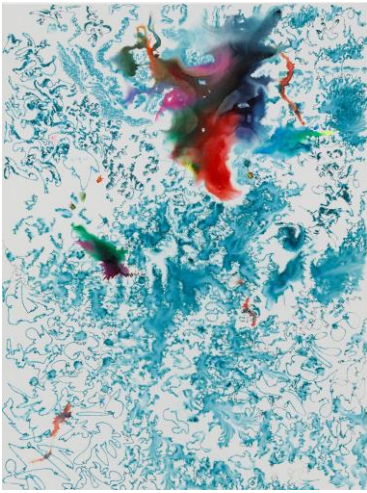
상기 작품은 진품임을 보증합니다.

위 작품이 위작이라고 의심될 때에는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후 위작임이 판명되면 귀하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금액 전액을 보상지급해 드립니다.

Date of Issue : 2022. 6. 1
Aproject Company Co., Ltd.
CEO Jay Jongho Kim



Condition Report
작 품 확 인 서



ARTIST Yoo Seung-ho
TITLE Miss Lamella
YEAR 2019
MEDIUM Ink and acrylic on canvas
SIZE 96 x 72 in
PRICE USD 40,000

이 름 유승호
제 목 라멜라양
연 도 2019
재 료 캔버스에 먹, 아크릴
크 기 245 x 183.6 cm
금 액 40,000,000 KRW

The above work is in an excellent condition. When the work is sold, it will be shipped to the customer after the condition check. We are fully responsible for all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transportation process, and we will cover all shipping costs.

위 작품의 상태는 매우 우수하며 작품이 판매되어 발송할 경우
다시한번 작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 없을 때 고객에게 발송됩니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작품금액과
운송비용 일체를 보상해 드립니다.

Date of Issue : 2022. 6. 1
Aproject Company Co., Ltd.
CEO Jay Jongho Kim

